

### 파라미타 활동 생활기록부에 적용된다

파라미타外 21개 단체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선정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 단체로 선정돼 파라미타 청소년 활동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미타는 “올해 파라미타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단체로 선정됐다”며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되고 있어 이번 파라미타의 등재는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청소년단체에 참여한 회원 청소년들의 활동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 16개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선정해 대상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회원들의 활동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되고 있다.

2015년에 등재된 청소년 단체는 파라

미타를 비롯해 기독교청소년협회(CYA),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21개 단체다.

등재단체의 자격요건은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지 3년 이상 경과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전국단위의 조직(5개시·도 지역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활동이 활발한 단체 △자체규정이 제정돼 있어야 한다 △30시간 이상 지도자 훈련과정 직무연수 운영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사교육 조정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함 등 6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파라미타는 “6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등재단체 유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자격유지를 위해 지역별 협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나는 기자

### 불레협, 매주 수요일 정기문화강좌 마련

제27회 연꽃노래잔치 개최, 4월 18일 예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정여, 이하 불레협)는 법회 프로그램 개발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 ‘정기문화강좌’를 진행한다.

문화강좌는 주1회 법회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불레협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3월 25일-주지집중법과 세친구 인사놀이 △4월 1일-부처님 X파일(법구경 전법법 연구) △4월 8일-8상성도 북아트 △4월 15일-의식곡 지도하기, 찬불동요 △4월 22일-주의집중법, 친목과 단결놀이 등으로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burec@hanmail.net) 또는 전화 접수 가능하다.

한편 불레협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찬불가경연대회인 ‘제27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연꽃노래잔치’를 개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꽃노래잔치는 독창과 중창, 합창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은 오는 4월 18일, 본선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노래잔치는 독창과 중창(15인 이내)은 자유곡(찬불가) 및 창작찬불가를, 합창(15~20명)은 지정곡과 자유곡 1곡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팀에게는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장과 장학금, 트로피 등이 수여되는 등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이 수여된다. (02)738-7860 이어나는 기자

### 불심 담은 사진 공모전 한번 도전 해볼까

불교사진협회·파라미타·봉축위,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개최

청소년들이 영상을 통해 불심을 키울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봉축위원회와 한국불교사진협회,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교생활 △사찰에서의 종교활동 및 법회모습 △불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 모습 △파라미타 수련생활 모습 △불교문화적 가치를 표현한 이미지를 담은 사진을 4월 5일까지 접수받는다.

1인 5점 이내로 접수 가능하며 사진은 가로 2500픽셀 이상의 JPG 파일 이미지로 하며 규격미달 사진은 실격 처리한다. 사진 보정은 가능하나 합성사진은 불가하다. 한국불교사진협회(www.buddhapphoto.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4월 중 입상자를 발표하며 시상식은 5월 20일 한국불교사진협회 제20회 회원전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시상내역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등 각 1명에게 장학금과 상품을 지원한다. (02)2266-0302

이어나는 기자

# 사찰도서관서 마음껏 책보고 놀아요

시흥 대각사, 3월 7·8일 어린이 ‘흥부네 책놀이터’ 개원

산중 사찰이 도심으로 내려와 침체기에 있는 지역 어린이 포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각사(주지 원돈)는 3월 7·8일 시흥 정왕동에 위치한 옥탑방과 대각사 경내에 ‘흥부네 책놀이터’ 본점과 1호점 개원식을 가졌다.

7일 개원식에는 대각사 주지 원돈 스님을 비롯해 부산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중앙승가대 재마스님, 꿈이 있는 교회 김제언 목사, 시흥시 시의회 박선옥 부의장,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이규선 회장, 학교 도서관 네트워크 김경숙 사무처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고불식과 함께 오프닝 연주, 경과보고 및 인사말, 축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원돈 스님은 “대각사는 산중에 위치해 기도 수행처로는 좋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오기에는 불편함이 있다”며 “정왕동 다세대 주택 단지 내 옥탑방, 대각사 도량 내에 책놀이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축사를 통해 “요즘 ‘성장’이라는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우리에게 성장은 위해 달리는 공간이 아닌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 원돈 스님이 마련한 책놀이터가 아이들과 지역민들에게 쉬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대각사(주지 원돈)는 3월 7·8일 시흥 정왕동에 위치한 옥탑방과 대각사 경내에 ‘흥부네 책놀이터’ 본점과 1호점 개원식을 가졌다.

정왕동 옥탑방·대각사 경내 개원 도서 2500권 보유, 봉사자 모집 중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운영할 것”

지난 해 9월 불자 박미경 씨로부터 정왕동 옥탑방을 소개받은 원돈 스님은 보리출판사 직원들과 의논 후 작은 도서관 마련을 발원했다. 이후 옥탑방을 계약한 스님은 어린이 도서관의 원만 개원을 발원하며 100일 동안 매일 300배 기도를 시작했다.

원돈 스님은 “새로 시작한 일이 잘 되길 발원하며 매일 기도를 했다. 덕분에 보리출판사를 비롯해 소식을 들은 불자 개개인 책을 기증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흥부네 책놀이터 1호점은 30평 규모로

어린이 도서 12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6시 이용 가능하며, 대각사 혜조 스님과 봉사자들이 상주할 계획이다. 대각사 내에 마련된 책놀이터 본점은 25평 규모의 공간에 13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된다.

원돈 스님은 “매일 아이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스님과 차도 마시는 상상을 한다”며 “흥부네 책놀이터가 아이들이 자라 먼 훗날 행복한 추억 속 한 장면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어린이 도서관 개원에는 이웃 종교의 격려가 이어져 종교가 화합된 모습으로 지역포교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흥 꿈이 있는 교회 김제언 목사는 7일 개원식에 참석해 직접 기타를 치며 축하를 불러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

목사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원하는 걸 챙겨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통이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원돈 스님이 마음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실 ‘흥부네 책놀이터’에는 아직 그렇다할 계획이 없다. 원돈 스님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꾸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원돈 스님은 “어린이들이 사랑방 같은 공간에 모여서 마음껏 놀 수 있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게 뭐니’라고 묻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가고 싶다”며 “혜조 스님과 함께 정일품(정왕1동 정이 가는 마을 만들기)모임에 가입했다. 매주 모여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하고 책 놀이터가 마을에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498-6076 이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대불련, 새학기 신입 회원 모집 ‘박차’

3월 3일부터 한달간 전국 40여개 지회 홍보활동 전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재은, 이하 대불련)가 새학기 개강을 맞아 신입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대불련은 3월 10일 서울지부 지회 소속인 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불교학사회와 연합해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동아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이번 동아리 홍보전을 위한 불교학사회 연합은 올해 대불련 53년차의 모토인 ‘꽃다발 대 불련, 연합하는 대불련’의 기치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크다.

대불련 이재은 회장은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이 침체돼 있다고들 하지만 이번 대불련 모토에 걸맞게 활동하기 위해 지난 2월 7~8일 캠퍼스 포교 워크숍을 시행했다”며 “홍보 기간 동안 신입회원들을 위한 포교물품으로 대불련 홍보 포스터와 대불련 활동이 들어간 노트, L자 파일, 체험형 포

교물품(지하물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불련 중앙회와 서울지부 소속 회원들은 ‘서강대 동아리 거리제’에서 서강대 불교학사회(회장 김동현) ‘혜명’ 홍보활동을 위해 부스에 찾아오는 신입생들에게 대불련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함께 단주를 나눠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혜명 전체 회원은 15명으로 다른 지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주 월요일 법회를 열어 연중행사로 템플스테이, 다과회, 등산, 불교산하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강대 불교동아리 김동현 회장(서강대 중국문화과 11학번)은 “어제부터 동아리 홍보활동을 했는데, 오늘 서울지부 학생들이 연합해서 홍보를 도와주시 어제보다 홍보가 더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 산하에 있는 가톨릭대, 고려



대불련은 3월 10일 서울지부 지회 소속인 가톨릭대, 연세대, 이화여대 불교학사회와 연합해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동아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대, 광주대, 대전대, 동국대, 덕성여대, 서강대 등 전국 40여개 지회는 3월 3일부터 한달 동안 캠퍼스포교·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대불련은 3월 20~22일 충주 석종사에서 새내기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2015학번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 불교와 불교학사회에 관심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을 수계사로 한 수계법회를 비롯해 108배, 참선, 소리명상, 예불, 포행, 율령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신심을 키운다. 이어나는 기자

## 공 고

사단법인 경제어산 전승보존회에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43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원명 큰스님께서 수록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에 수록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초학자와 영산을 배우신 스님들께서는 법석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 1 초학자는 교육을 통하여 심화학습을 합니다.
- 2 영산재를 익힌 분들은 시연을 통한 재의식을 강의합니다.

※ 연락처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전화문의 : 02-2658-3100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사단법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원명**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대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